

보도시점 2025. 9. 25.(목) 06:00
9. 25.(목) 석간

배포 2025. 9. 24.(수) 14:00

K-ODA, 기업 UN 식품조달시장 진출 확대 뒷받침

- 식량원조(영양강화립)를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 최초 UN 조달 시장 진출
- 세계 영양강화식품 시장은 '32년 2,220억 \$(310조)로 '22년 880억 \$ 대비 2.5배 확대 전망

지난 9월 4일 우리 기업 (주)젤텍이 UN-세계식량계획(WFP)으로부터 영양강화립(Fortified Rice Kernel, FRK)* 공급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27.5억 불 규모의 UN 식품조달시장에 진출했다. 이는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이 국제기구 조달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로,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이 단순한 쌀 공여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내실화된 공적개발원조(ODA) 모델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다.

* 쌀가루에 비타민·무기질 프리믹스를 첨가해 쌀알 모양으로 반죽·압출·성형한 인조미로, 쌀의 맛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양가를 높여 영양실조 예방에 효과적

이에 따라 국산 영양강화립 201톤은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로 출항하는 원조 쌀 20,064톤과 함께 현지 난민·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.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식량원조와 영양강화립 첫 지원을 기념하는 행사도 UN-세계식량계획(WFP)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.

UN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「아시아·태평양 지역 식품 강화 전략 2024-2029」에서 미량영양소* 결핍에 직면한 전 세계 가임기 여성과 발육부진, 저체중에 처한 아동 19억 명 등의 현황과 함께 필수영양소 섭취를 위한 영양강화식품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, 유엔 세계식량계획(WFP)은 15개국과 협력하여 2026년까지 8억 5천만 명 이상에게 영양강화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.

*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우리 몸의 건강과 대사에 필수적이지만 거대 영양소(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)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량만 필요한 영양소

** 영양강화쌀 : 영양강화립(1%)과 일반 쌀(99%)을 혼합한 쌀

동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영양강화식품 시장 규모는 2022년 880억 달러(한화 약 123조 원)에서 2032년에는 2,220억 달러(한화 약 310조 원)로 약 2.5배 성장할 전망으로, 유엔 세계식량계획(WFP)은 이중 영양강화쌀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69억 달러(한화 약 233조)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농식품부는 UN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기구(WFP)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WFP가 공동사업자인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내기업이 영양강화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특히 ‘26년은 식량원조 사업 이외에도 중동 내전 등으로 악화되는 예멘과 레바논 지역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「학교급식강화 사업(‘26~’28, 총 사업비 46억원)」도 UN 세계식량기구(WFP)와 함께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, UN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필요 기술부터 조달 절차까지 지속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기업 참여 기회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.

* '26년 농식품부 WFP 협업 ODA (안) : 식량원조(633억 원), 예멘레바논 학교급식 강화사업 ('26~'28, 46억원)

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“WFP 등 U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식품기업들이 UN 조달시장에 진출한다면 K-ODA 연계 K-푸드 수출 활성화의 성공 모델이 될 것”이라며, “이 모델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식량 위기 극복에 최선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붙임 1. 영양강화립 국산화 배경 및 제품 설명 (사진 첨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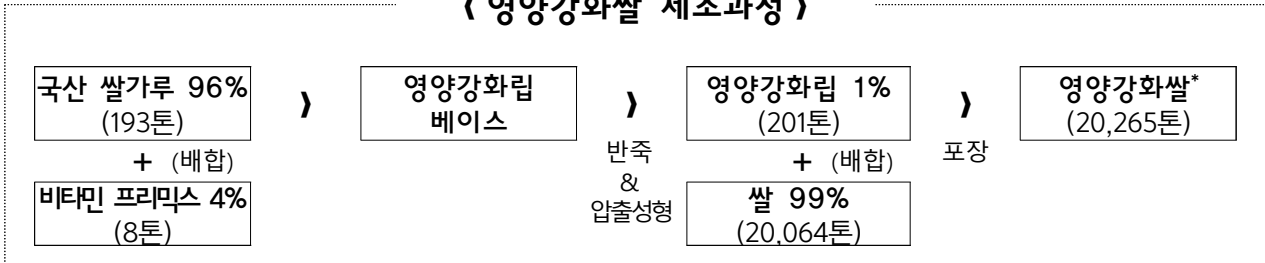
붙임 2. 영양강화립 관련 사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실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	책임자	팀 장	김신재 (044-201-2011)
		담당자	사무관	김규안 (044-201-2017)



□ **영양강화립**

(영양강화쌀 제조과정)



- (제품 설명) 미량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쌀과 배합되는 인조미
 - WFP는 '29년까지 식량원조 쌀의 80%를 영양강화쌀로 공급할 계획

□ **UN 시장진출 배경**

- UN 조달시장에서 농·식품분야의 규모는 27.5억불('23)로 3번째로 크지만, 우리 농식품기업은 진출 실적 및 벤더 등록 경험이 없었음
 - * 대한민국 기업의 UN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04%(2.58억 불)
- '20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한국 기업의 UN 식품시장 진출을 추진했으나, 국제인증 취득, 품목 발굴, 조달 규정 충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음
 - ⇒ 식량원조사업과 연계 가능한 **영양강화립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**하고, 관련 협의체*를 구성하여 기술,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지원 실시
 - *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,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, 조달청 국제협력국,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, WFP 한국사무소

□ **성과**

- (UN 식품시장 첫 진출) UN 식품시장에 영양강화식품을 국제적으로 납품 가능한 3번째 업체로 국내기업이 등재
- (추가 수출 기반 마련) 국제 인증 취득 및 생산 경험 축적으로 신규 기업·품목(영양강화 비스킷, 슈퍼시리얼, 에너지바 등) 발굴 환경 조성



국산 영양강화립을 혼합한 식량원조용 영양강화쌀 선적 검사 (25.9월)



인도 영양강화쌀 생산 공장 사진 (제공 : WFP / Aditya Arya)



영양강화쌀로 만든 밥을 먹는 어린이 (제공 : WFP/Hilary Clarlec)